

# 전남도, 유엔기후변화협약 기후주간 유치 총력전

전남도가 '2026년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기후주간(Climate Week)' 개최국 확정을 앞두고 중앙부처와 공조체계를 강화하며 국제기구 고위급 외교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여수시가 9월 국내 개최지로 최종 선정된 이후, 정부·유엔기구와의 연세 접촉을 통해 대한민국 유치 명분과 전남 개최 필요성을 집중 살피고 있다.

4일 도에 따르면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주관으로 2021년부터 시작된 기후주간은 전 세계 198개국 협약 당사국과 국제기구·NGO 등 수천 명이 참여하는

**전남방문단, 국제환경기구 최고위급 관계자 만나 협조 당부**

**대한민국 개최 요청 도지사 친서, 사이먼 스티엘 사무총장 전달**

국제 환경 행사다. 당시국총회(COP) 공식의제 설정을 위한 사전 논의의 장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전남도는 지난 9월 기후부에서 실시한 전국 단위 개최 도시 공모에서 경기, 충북, 경남, 제주를 제치고 전남(여수) 선정을 이끌어낸 후, 대한민국 유치 확정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되었다.

또한 기후주간의 대한민국 개최를 요청

중앙부처와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기후부·여수시 등과 11월 브라질 벨렌에서 열린 COP30에 참가해 전남의 탄소중립 정책과 2026년 기후주간의 전남 여수 개최 필요성을 강조하는 포럼을 개최함으로써 국제사회에 전남의 의지와 열망을 널리 알렸다.

또한 기후주간의 대한민국 개최를 요청

하는 전남도지사의 친서를 사이먼 스티엘(Simon Stiell)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총장에게 전달했다.

지난 1~2일 박철주 전남도 국제관계대사를 단장으로 한 전남방문단은 독일 본에 있는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과 이를레이(ICLEI) 세계본부 등을 방문해 노우라 할라지(Noura Hamlaoui)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부총장, 지노 반 베긴(Gino Van Begin) 이를레이 사무총장 등 국제환경기구 최고위급 관계자를 만나 전남의 탄소중립정책 소개와 2026년 유엔기후변화협약 기후주간의 대한민국 유치 당위성

을 적극 피력하고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노우라 할라지 사무부총장은 "유엔기후변화협약은 그동안 대한민국과 매우 긴밀한 파트너십을 유지했고, 기후주간 개최로서 전남도는 충분한 역량을 갖췄다고 생각한다"며 "전남 방문단이 여기까지 찾아와 철학력 있고 의미있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2026년 유엔기후변화협약 기후주간 개최 국가 결정이 12월에 이뤄질 것으로 보고 실용성과 품격을 갖춘 회의장, 의미와 내용 있는 연례 행사와 프로그램, 편리하고 안전한 숙박·교통 등 차질 없는 행사를 위한 사전 준비에 온힘을 쏟을 계획이다.

김영록 지사는 "2026년 유엔기후변화협약 기후주간의 대한민국 유치는 기후위기 대응을 주도하는 글로벌리더 국가도의 계기가 될 것은 물론, 그동안 COP 유치를 위해 노력한 전남의 열망과 능력을 전 세계에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 유치 확정을 위해 기후부·여수시 등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제12회 남구민 나눔의날' 4일 오후 광주 남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희망2026나눔 캠페인 '제12회 남구민 나눔의날' 행사에 참석한 김병내 남구청장과 주민들이 릴레이 기부를 하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 광주시, 시민 참여 '기후위기 대응' 해법 모색

시민총회…시민 300명 사회적 숙의 통해 정책 발굴

강기정 시장 "행정·공공 중심서 시민 중심으로 전환"

광주시가 전국 최초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시민총회를 열어 시민들과 함께 해법을 모색했다.

광주시와 광주기후에너지진흥원은 4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기후위기 시대, 광주는 무엇을 할 것인가?'를 주제로 '빛고을 기후위기 대응 시민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시민총회는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기후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행정·공공 중심의 대응을 넘어 시민이 주체적으로 대응 방안과 전략을 모색하고 우수 정책을 발굴

해 실행하고자 마련됐다.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

서 성별·계층·직업 등 다양한 사회적 배경을 아우르는 민주적 참여와 사회적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에서다.

특히 그동안 의견수렴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청소년·여성·활동가 등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확대해 시민 주도형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시도이다.

시민총회에는 강기정 시장, 윤제경 광

시민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기후위기에 관심 있는 시민을 비롯해 청소년, 대학생, 애너지전환마을 주민, 넷제로 프렌즈, 사회적경제기업, 종교계, 자원봉사자, 광주대자보 실천단 등 다양한 시민들이 스스로 나서 광주의 기후위기 정책을 논의했다.

'기후위기, 거대한 기속에서 담대한 전환으로'를 주제로 한 특강을 한 조천호 전국립기상과학원은 "기후위기는 더 이상 미래의 문제가 아닌 현재 우리가 직면한 현실"이라며 "광주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일상 속 작은 실천과 행동이 가장 큰 힘이 될 수 있다"고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참석자들은 워크숍을 통해 광주시민이

바라는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 의제 및 사업을 발굴했다. 현장에서 실시간 투표를 통해 정책실행 우선순위 및 우수 정책 과제를 선정했다. 광주시는 총회에서 나온 정책 아이디어를 실제 정책 수립 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

강기정 시장은 "광주에서 최초로 개최된 기후위기 대응 시민총회를 통해 행정·공공 중심의 기후위기 대응이 시민 중심으로 전환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사회적 숙의를 통해 도출된 기후위기 대응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관련 정책과 사업들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2040 광역도시계획안' 공청회  
광주, 오늘 나주 동신대서 개최

광주시와 전남도는 5일 전남 나주시 동신대학교 중앙도서관 동강홀에서 '2040 광주권 광역도시계획(안)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날 공청회는 미래차국가산단이 국가 전략사업으로 확정됨에 따라 이를 광역도시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2040 광주권 광역도시계획'은 광주시와 광주 인근 전남 5개 시·군(나주·담양·장성·화순·함평)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보고, 서남권 대도시권·광역경제권·광역 생활권을 조성하기 위한 장기 계획이다.

계획에는 경계지역 육성, 핵심산업 회랑 구축, 광역교통 연계 효율화 등이 주요 전략으로 담길 예정이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진월동 서문대로-봉선동 대화아파트 터널 개설

정진욱 의원, 설계비 확보…“백운광장 교통혼잡 해소”

광주 교통의 중심으로 대표적인 상습 정체구간인 남구 백운광장 일대의 교통 혼잡이 해소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될 전망이다.

정진욱 국회의원(광주 동남갑)은 4일 "국회에서 처리된 2026년도 국비 예산 가운데 남구 진월동 서문대로~봉선동 대화아파트간 도로개설 사업의 설계비 5억원을 신규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남구 진월동 서문대로~봉선동 대화아파트간 도로개설은 총 사업비 774억원(국비 232, 시비 542)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길이 0.76 km(터널 495m 포함)의 4차선 도로이다.

정 의원은 "이 도로 개설은 특히 진월동

및 봉선동, 주월동, 효천지구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현재 봉선동에서 백운광장을 통해 나주 방향으로 떠져나가는 데만 출퇴근 시간 기준 최소 20분 이상 소요되는 만성적인 교통 정체구간이다"며 "지난 2019년 광주시에서 '국고보조사업'으로 신청하고 2021년 7월 제4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으로 선정됐지만, 물가 상승과 설계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증가 등으로 중단된 상태였는데 이번에 설계비 반영을 통해 다시 추진해 사업에 착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달 국토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에서 '제5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으로 선정되면, 내년 1~2월 기

본계획 고시를 거쳐 3월경 이번에 반영된 5억원으로 본격적인 설계추진에 들어갈 예정이다.

정 의원은 "이번 국비 확보를 통해 남구와 광주의 오랜 속이 해결될 단초가 마련됐다"며 "남구의 핵심 생활권을 유기적으로 잇는 교통체계가 갖춰져 지역 발전의 속도를 가속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어 "2030년 원공을 목표로 한 이번 사업이 예정대로 마무리 돼 교통망이 확충되면 시민들의 이동 편의가 개선되는 것은 물론, 백운광장을 중심으로 한 상권 활성화와 남구 내 지역 균형발전에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향후 공사 과정에서도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광주시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교통 환경 개선 효과가 나타나도록 사업이 마무리될 때까지 적극 쟁기겠다"고 강조했다.

정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신정훈 행안위원장, 8일 전남지사 출마 선언

"전남에서 국민주권정부 실현…도민주권시대 열겠다"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더불어민주당·전남 나주·화순·사진)이 오는 8일 전남도지사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한다.

출마선언식은 8일 오전 11시 전남도의회

초의실에서 열린다.

신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국민주권정부'를 전남에서 실현해 도민이 주인이 되는 '도민주권시대'를 여는 것이 저의 사명"이라며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성장하는 국가 균형발전의 출발점을 전남에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저의 다짐을 도민들께 가장 먼저 보고드리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한다"며 "정치가 시작된 전남도의회에서 다시 초심으로 서겠다. 출마선언식에서 더 구체적인 비전과 포부를 밝힐 것이다"고 말했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전남도정에 대한 구상을 제시하고, 주요 정책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선언식 직후에는 기자회견을 열어 언론 질의에 답한다.

신정훈 위원장은 전남도의원(재선)과 나주시장(재선)을 지낸 3선 국회의원으로, 나주 혁신도시와 한전공대 유치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올해 인공태양연구시설의 전남 유치를 성사시키며 지역 현안 해결에 기여했고, 용해인 의원과 함께 '농어촌기본소득법'을 대표발의해 정부의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을 이끌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